

가스공사 사장 적임자를 찾습니다!

6월14일 임시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 혁신 이끌어야

한국가스공사는 6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 3명에 대해 인사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안을 해결하고 가스공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후보로는 유인학 전 국회의원과 유창무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이규선 가스공사 부사장 등 3명이 올랐었다.

가스공사는 6월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사장 선출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조만간 사장후보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다음주 이사회 소집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사장후보 공모를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 후보 공모,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정관에 따라 공모에 의해 사장을 선임하며 오강현 전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사장 선임을 위해 1차 후보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가스공사 대주주인 정부는 1차 공모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오강현 전 사장은 가스공사 경영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겪은 끝에 ▲가스산업 구조개편 노사합의 실패 ▲가스산업정책 반대 노조집회 묵과 ▲정부와 협의없이 LNG 도입물량 감축 등을 이유로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오강현 전사장은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사유 및 주주총회의 해임의결이 부당하다며 5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스공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화학저널 2005/06/15>